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해제 — 『죄 죽이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박문재)

『죄 죽이기』 역자 해제(박문재), 인쇄 8~28쪽

🧭 흐름 한눈에

역자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의 신분 문제인 칭의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인 성화를 구별하고, 『죄 죽이기』는 성화에 관한 책이라고 짚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교회가 성화를 '기독교 윤리'로 바꿔 버린 현실을 비판하며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다음 1656년 옥스퍼드라는 저작 배경과 오웬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14장으로 된 책의 구성과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은 죄의 성향, 죄 죽이기의 정의, 지성의 역할, 그리스도와 성령, 낮아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웬의 성화론 4부작 안에서 이 책의 자리를 보여 주고, 제임스 패커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 절별 정리

📜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라

역자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정체성, 곧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지니고 산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 정체성은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믿음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이고, 이로써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화론입니다. 역자는 오웬이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 성화라는 점을 원제로 확인합니다. 원제는 『신자들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하여: 이것의 필요성과 본질과 수단들』입니다. 또 오웬의 목표는 이론이

1. 칭의는 신분, 성화는 삶의 문제다
2. 『죄 죽이기』는 신자의 죄를 다룬다
3. 불신자의 죄는 회개와 믿음의 문제다
4. 오웬의 목적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5. 원제에 '신자들 안에 있는 죄'가 박혀 있다

> **로마서 8:13**
> 책 전체의 주제 본문. '신자'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성화의 틀을 준다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2. 견인 교리와 성화: 신분은 그대로지만 열매는 나타난다

역자는 이 책이 신자의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오웬은 형식적 '교인'과 참된 '신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역자는 이것을 개혁파 구원론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 따라,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심겨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전혀 없다면 처음부터 신분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자에 따르면, 오웬은 참된 신자라도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구원받습니다. 역자는 이를 왕이 거지 행세를 해도 왕의 신분은 그대로지만, 왕답게 사는 것은 아닌 것에 비유합니다.

1. 의인의 신분은 죄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2. 참된 칭의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른다
3. 성화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신자의 증표다
4. 소홀한 신자는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산다

고린도전서 3:15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한 신자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겨우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 3. 오늘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화가 윤리로 대체되다

역자는 20세기 복음주의가 '오직 믿음'과 복음의 은혜·복을 강조하는 사이에 성화론이 약해졌다고 진단합니다. 그 빈자리를 사회 속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다루는 '기독교 윤리'가 채웠습니다. 성화론이 영혼과 내면을 다룬다면, 윤리는 주로 사회적 행동을 다룹니다. 역자는 오웬 당시의 문제도 짚습니다. 하나는 옥스퍼드 학생들의 영적 나태와 부도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가톨릭과 국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정한 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죄를 깨닫게만 하고 치료책은 주지 않아 교인들을 평생 괴롭게 했습니다. 반면 오늘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 뒤, 꽤 높은 도덕 수준으로 사는 법만 고민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역자에 따르면 오웬은 그런 삶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단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계속 죄를 죽이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 20세기에 성화론이 기독교 윤리로 바뀌었다
2. 오웬 당시: 학생들의 나태, 치료 없는 정죄
3. 오늘: 확신 + 도덕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4. 죄 죽이기 없이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5.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을 써야 한다

고린도전서 3:15

성화를 포기한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잃고 겨우 구원받게 됨을 경고한다

>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죽이면 산다'는 대조로, 성화가 선택 사항이 아님을 보여 준다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4. 동기를 물으라: 죄는 은혜를 누리는 전쟁터다

역자는 독자에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 역자는 오웬이 이 책에서 동기 문제를 짚는다고 소개합니다. 죄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죄를 죽이려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양심에 괴로움이 없거나, 괴로움을 피하려고 '이건 세상 사랑이 아니야'라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이 입습니다. 역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성화는 하기 싫다'는 태도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자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길이고, 최악의 경우 거듭나지 않았다는 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역자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복과 은혜를 실제로 맛보는 전쟁터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신자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스도, 능력과 평강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죄 죽이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괴로움을 피하려는 동기로는 죄가 안 죽는다
2. 세상 사랑을 합리화하는 것이 위선이다
3. '성화는 안 하겠다'는 말은 위험 신호다
4. 죄와의 싸움터에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다
5. 죄 죽이기는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

> **(이 절에서 역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동기 문제는 본문 각 장에서 오웬이 구절과 함께 자세히 다룬다

이 책은 1656년에 나왔고, 1658년에 개정증보판이 나왔습니다. 번역서는 개정증보판을 대본으로 삼았습니다. 원래는 오웬이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한 강론입니다. 오웬은 1649년 올리버 크롬웰의 전임목사가 되었고, 1651년 크롬웰의 지명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 칼리지의 예배당에서 당시 13~17세였던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강론을 했습니다. 이후 경건한 사람들의 요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역자는 당시를 복음적 설교는 많았지만 복음적 경건은 쇠퇴한 시대로 봅니다. 한편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삼위일체를 부인한 소키누스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중세 전통을 이은 로마 가톨릭과 국교회의 경건이 주류였습니다. 역자에 따르면 이 둘은 모두 죄와 성화를 복음적 원리로 다루지 않았고, 그 결과가 영적·도덕적 해이였습니다. 오웬은 그 해법으로 로마서 8:13을 주제 본문 삼아 개혁교회 정통 성화론을 세웠습니다.

1. 1656년 출간, 1658년 개정증보판
2. 옥스퍼드 학생 대상 설교에서 나온 책
3. 복음 설교는 많아도 경건은 쇠퇴한 시대
4. 인본주의 신학과 가톨릭 경건이 다 문제였다
5. 해법: 로마서 8:13 중심의 성화론

> **로마서 8:13**
> 주제 본문. 한 본문을 깊이 풀어 가는 강해 방식으로 성화론 전체를 전개하는 출발점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6. 오웬은 누구인가 (1): 방황과 평안

오웬은 1616년 옥스퍼드셔 스태드엄에서 청교도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오웬은 신실한 청교도 사역자였습니다. 오웬은 어려서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에 들어가 1632년 학사, 1635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잘 만큼

일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두고 깊이 방황했습니다. 역자는 그 방황이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의 몇몇 주제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전환점은 런던 올더맨베리 교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에드먼드 캘러미 대신 강단에 선 무명의 시골 목사가 마태복음 8:26을 설교했고, 그 설교로 오웬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역자는 이 경험이 훗날 『시편 130편 강해』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 뒤 첫 책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정체』(1642)를 써서 칼빈주의를 옹호했습니다.

1. 1616년 청교도 가정 출생, 일찍 옥스퍼드 입학
2. 로드 대주교의 탄압으로 옥스퍼드를 떠남
3.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긴 방황을 겪음
4. 무명 목사의 설교로 평안을 찾음
5. 그 경험이 『시편 130편 강해』에 녹아 있다

> **마태복음 8:26**
>
> “믿음이 작은 자들아” — 오웬이 방황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설교 본문
>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 7. 오웬은 누구인가 (2): 목회자, 학장, 저술가

청교도 혁명과 내전 때 오웬은 의회파를 지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왕당파였던 삼촌의 재산을 물려받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1643년부터 포드엄에서 목회했고, 메리 루크와 결혼해 11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려서 죽었고, 딸 하나도 결혼 뒤 곧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1646년 코그셀에서 회중교회를 시작하자 회중이 2,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1647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을 썼습니다. 1649년 의회 설교로 크롬웰의 신임을 얻어 그의 전임목사가 되었습니다. 1651년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학장, 1652년 옥스퍼드 부총장이 되었고, 1653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시절 『하나님과의 교제』,

1658년에는 사보이 선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62년 통일령으로 비국교도가 공직에서 쫓겨난 뒤에는 거의 저술에만 전념했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히브리서 강해』, 『성령론』,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묵상』 등이 이때 나왔습니다. 1683년 8월 24일,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묵상』이 인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세상을 떠났고, 번힐 필즈에 묻혔습니다. 역자는 “그에게 저술은 곧 그의 삶이었다”고 요약합니다.

1. 자녀 11명을 거의 다 먼저 떠나보냈다
2. 크롬웰의 목사, 옥스퍼드 학장·부총장
3. 『죄 죽이기』는 옥스퍼드 시절의 책
4. 1662년 이후 공직을 잃고 저술에 전념
5. 1683년 저술 소식을 들은 날 세상을 떠남

> **(이 절에서 역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생애 소개 부분

📜 8. 책의 구성: 14장의 지도

역자는 14장을 여섯 덩어리로 나눕니다. 제1장은 로마서 8:13을 풀어, 신자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를 죽이는 것이 신자의 의무임을 확증합니다. 제2~4장은 일반 원리입니다. 죄 죽이기는 평생의 의무이고, 오직 성령만 죄를 죽일 수 있으며, 죄 죽이기가 영적 생명과 활력을 줍니다. 제5~6장은 정의입니다. 먼저 죄 죽이기가 '아닌 것'을 듭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 겉 행동만 그만두는 것, 인격 수양, 죄의 형태를 바꾸는 것,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은 죄 죽이기가 아닙니다. 그다음 죄 죽이기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제7~8장은 일반 지침입니다. 죄 죽이기는 오직 신자만 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는 어떤 죄도 죽일 수 없습니다. 제9~13장은 아홉 가지 구체 지침입니다. 위험한 징후 살피기, 죄책과 해악 알기, 양심에 부담 주기, 간절히 열망하기, 본성의 뿌리 보기, 죄가 쓰는 계기 살피기, 잉태 자체를 막기, 자기 비천함 묵상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평안을 선언하지 않기입니다.

1. 1장 본문, 2~4장 원리, 5~6장 정의
2. 7~8장 일반 지침, 9~13장 구체 지침
3. 14장: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 의지
4. 죄 죽이기 '아닌 것' 다섯 가지를 먼저 밝힌다
5. 앞의 모든 지침은 14장을 위한 준비다

> **로마서 8:13**
> 제1장의 해설 대상. '너희(신자)'·'영으로써'·'죽이면 살리니'에서 의무, 성령, 생명이라는 일반 원리가 나온다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9. 책의 내용 (1): 죄의 성향과 죄 죽이기의 정의

역자에 따르면 오웬은 신자 안의 죄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으로 이미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는 신자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남아 새 생명의 원리, 그리고 성령과 싸웁니다. 그래서 오웬은 로마서 7장을 성령의 법을 따라 죄의 법과 싸우는 신자의 상태로 읽습니다. 죄는 영혼 안의 '성향'이고, 마음에서는 죄악된 욕망(lust)과 죄악된 기질(distemper)로 나타납니다. 죄악된 욕망은 명예욕, 탐심, 정욕 같은 것이고, 죄악된 기질은 시기, 증오, 비판, 심술 같은 것입니다. 오웬은 본성과 죄도 구별합니다. 본성은 부드럽게, 죄는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조용히 사는 사람은 죄를 죽였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죄의 상태라는 점은 같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임을 목표로 삼되, 실제로는 죄의 성향을 약화시켜 대부분의 경우 이기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1. 죄는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남아 싸운다

4. 완전 제거는 불가능, 약화와 지속적 승리

5. 그리스도와 성령이 빠지면 속임수다

> **로마서 7장**
>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는 '신자'의 상태로 읽는다
>
>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 **로마서 8:13**
> 죄 죽이기가 신자의 의무이자 '영으로써'만 가능한 일임을 보여 준다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10. 책의 내용 (2): 지성, 하나님 앎, 그리고 낮아짐

역자는 오웬이 죄 죽이기에서 '지성'을 중시한다고 강조합니다. 죄는 속임수로 지성을 어둡게 하고, 감정과 의지를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건너뛰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통해 일하십니다. 의지는 대체로 지성의 판단을 따르므로, 지성이 속으면 의지도 성령께 협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과

날마다 묵상해 그 말씀이 지성을 채우고 의지와 감정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성·의지·감정을 다 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죄를 이깁니다. 역자는 여기서 오웬의 '낮아짐'(humiliation)의 신학을 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낮아질 때, 우리는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성령이 강하게 일하셔서 죄가 죽습니다.

1. 죄는 먼저 지성을 속이려 든다
2.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3.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긴다
4. 말씀 묵상이 지성·의지·감정을 움직인다
5. 무능을 깨닫는 낮아짐이 승리의 길이다

> **(이 절에서 역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하나님의 엄위와 약속을 말하는 성경 말씀의 묵상을 수단으로 제시한다

"성령은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신다."

📜 11. 성화론 4부작과 패커의 고백

역자는 『죄 죽이기』를 오웬 성화론 4부작의 첫 책으로 놓습니다. 실천을 중시했기에 가장 먼저 실천 지침서를 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1667/1668)입니다. 죄를 죽이려면 죄를 잘 알아야 하기에 쓴 자매편입니다. 로마서 7:21을 주제 본문으로, 죄가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차례로 공략해 실제 죄를 낳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세 번째는 『시편 130편 강해』(1668)입니다. 깊은 죄에 빠진 신자가 회개를 거쳐 용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앞의 두 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죄와 은혜의 지배』(1688)입니다. 내재하는 죄의 목표가 '지배'임을 밝히고,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분별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죄와의 싸움이

신학자 가운데 오웬에게, 오웬의 책 가운데 이 소책자에 가장 많은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죄의 본질과 싸움의 방법, 성령의 사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1. 1. 『죄 죽이기』: 실천 지침
2. 2.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죄의 해부
3. 3. 『시편 130편 강해』: 용서와 회복
4. 4. 『죄와 은혜의 지배』: 결론과 분별
5. 패커: “영적인 금광”

> **로마서 7:21**
>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주제 본문. 선을 행하려 할 때 악이 함께 있는 '법'을 다룬다
>
>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시편 130:1-2**
> 죄에 빠진 신자의 부르짖음. 용서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
> [1]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시편 130:3-4**
> 하나님께 용서가 있음을 신자가 발견하는 과정
>
> [3]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 **시편 130:5-8**
> 용서를 자기 자신(5~6절)과 다른 신자(7~8절)에게 적용한다
>
> [5]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작은 책은 영적인 금광이다.” (패커)

⚖️ 오해와 반론

📖 용어

칭의
하나님이 믿음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신분을 바꾸시는 일.

성화
의인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삶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도의 견인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는 개혁파 교리.

죄 죽이기(mortification)
신자 안에 남은 죄의 성향을 성령과 믿음으로 약화시키며 지속적으로 이겨 가는 일.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 새 생명과 싸우는 죄의 성향.

죄악된 욕망(lust)
오늘날처럼 '음욕'만이 아니라 명예욕·탐심·정욕 등 악한 욕망 전체를 가리키는 당시의 말.

죄악된 기질(distemper)
시기·증오·비판·심술처럼 뒤틀린 마음의 기질.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강조한 분파.

소키누스주의
예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상.

낮아짐(humiliation)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 스스로 낮아지는 것.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 죽이기』는 신분(칭의)이 아니라 신자의 삶(성화)을 다루는 실천서다.
- 의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죄를 죽이지 않는 신자는 확신도 평안도 누리지 못한다.
- 오늘의 교회는 성화를 윤리로 대체했고, 이 책은 내면의 죄와 싸우는 길을 회복시킨다.
- 죄 죽이기는 죄를 아는 지성, 하나님에 대한 앎, 낮아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에 달려 있다.
- 이 책은 오웬 성화론 4부작의 출발점이며, 패커가 “영적인 금광”이라 부른 책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1편 ·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죄와 싸워야 해? · 오웬과 로마서 8장 13절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